Entertainment p/4
기다리던 K팝스타 첫 방송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제3100호 www.metroseoul.co.kr

Life p/10

한식 캐주얼 뷔페 인기몰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지스타 개막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지스타2014' 개막식이 열린 20일 부산 벡스코 행사장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 서 있다.<관련기사 12면> /뉴시스

'인터스텔라' 흥행 넘어 신드롬으로

개봉 14일째 박스오피스 정상… 544만 돌파
다양한 토론·패러디 등 사회적인 현상으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흥행이 심상치 않다. '인터스텔라'는 지난 6일 개봉 이후 14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누적 관객수 544만149명을 기록하고 있다. 평일에도 20만여 명의 관객이 들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다. 단순한 흥행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신드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감독 신뢰·에듀테인먼트·감동으로 흥행

'인터스텔라'는 '다크 나이트' 시리즈와 '메멘토' '인셉션'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으로 올 하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개봉 직전까지만 해도 영화의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웜홀과 상대성 이론 등 영화에 등장하는 복잡한 물리학 이론이 관객에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스텔라'는 이런 우려를 보란 듯이 이겨내고 흥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터스텔라'가 다룬 과학적 이론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패러디도 활발하다.

아이맥스·4DX·디지털·필름 등 다양한 포맷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점도 흥행에 한몫을 했다. 특히 아이맥스 상영의 경우 26일까지 대부분의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다. 재관람 열기도 뜨겁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 분석에 따르면 개봉 이후 지난 17일까지 '인터스텔라'의 재관람률은 3.8%에 달한다. '변호인' '명량' '겨울왕국' 등 최근 천만 영화의 재관람률 평균(3.7%)에 버금가는 수치다.

수입배급사인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의 박인아 마케팅팀 과장은 '인터스텔라'의 이 같은 인기에 대해 "흥행은 기대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흥행 요인으로는 '놀란 감독에 대한 한국 관객의 신뢰'와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라는 점을 꼽았다. 영화에 담긴 부성애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사실적인 연출로 관객 마음 사로잡아

'인터스텔라'의 흥행이 의미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사실적인 연출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

영화는 식량난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낯선 행성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5차원 세계를 3차원으로 표현한 영상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컴퓨터그래픽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배제한 채 완성됐다는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우주 탐험이라는 상상의 이야기를 그리는 '인터스텔라'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저명한 물리학자 킵 손의 고증을 받아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옥수수 밭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30만평이 넘는 대지에서 6개월 동안 옥수수를 키웠다는 일화도 사실적인 영화를 추구하는 놀란 감독의 열정을 잘 보여준다.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인터스텔라' 아시아 투어 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제작자 엠마 토머스, 주연 배우 앤 해서웨이, 매튜 맥커너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왼쪽부터)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또한 놀란 감독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된 지금 여전히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기를 고집하는 몇 안 되는 감독 중 하나다. 그가 필름을 선호하는 것은 "색깔·이미지·해상도 등에서 필름이 디지털보다 훨씬 좋다"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투어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흥행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놀란 감독은 "한국 관객의 과학적 소견이 높아 영화에 대한 반응도 뜨거운 것 같다"며 "고맙고 좋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수험생 9073명 한 등급 오른다

'출제 오류' 세계지리 정답 인정
내년 3월 정원외 추가 입학 허용

출제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8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73명의 등급이 한 등급 오르게 됐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 각각 상승했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의 산정 기준을 변경된 원점수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고 지난해 기존 성적 산정 때와 동일하게 적용 처리한 결과다.

대학은 피해 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다시 산정,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은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평가원은 기존에 적용했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의 기준을 유지하되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주의 개봉작

헝거게임: 모킹제이
장르: 판타지·액션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
출연: 제니퍼 로렌스, 조쉬 허처슨

캣니스는 헝거게임이 끝나고 자신의 고향인 12구역이 캐피톨의 폭격으로 파괴되자 절망감으로 괴로워한다. 12구역의 생존자들이 13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캣니스는 반정부 세력의 중심이 된다. 반군의 상징 모킹제이로 세상을 구할 반격을 시작한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장르: 드라마
감독: 김덕수
출연: 김상경, 문정희, 최다인

태만은 명문대 출신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해 10년째 백수 생활 중이다. 집에서 늘 빈둥거리다 보니 생활력 강한 아내 지수로부터 늘 잔소리만 들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를 보다 못한 딸 아영은 학교 나눔의 날에 아빠를 빌려주겠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봄
장르: 드라마
감독: 조근현
출연: 박용우, 김서형, 이유영

1960년대 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온 남자가 폭군처럼 군림한다. 슬퍼할 겨를도 잊고 살던 어느 날, 단아하고 고운 여인이 찾아와 누드모델이 돼달라는 제안을 한다.

모던발레 채플린
장르: 공연실황
감독: 소니아 파라모
출연: 타일러 갈스터, 아멜리아 월러

헐렁한 바지에 중절모,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콧수염의 남자. 우리가 기억하는 채플린은 그가 연기한 '리틀 트램프'라는 캐릭터의 모습이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캐릭터 '리틀 트램프'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무대에 오른 모던발레를 영화로 담았다. /장병호기자

참혹한 전장 속 현실의 얼굴

전쟁영화의 긴장감 속 깊고 오랜 여운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퓨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은 때때로 전쟁터처럼 다가온다. 생존을 위해 때로는 누군가와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퓨리'는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선 두 남자를 통해 삶의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영화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서 독일 나치군과 싸우던 미국 전차부대의 활약상을 그린다. 그 중심에는 '퓨리(분노)'라는 이름을 지닌 탱크를 모는 전차장 돈 콜리어(브래드 피트)가 있다. 돈은 자신의 부하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리더십 강한 군인이다. 전쟁의 아버지라는 뜻의 '워 대디'라는 별명이 그의 위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돈이 처음부터 전장의 참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부하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도 혼자 있을 때는 리더로서의 긴장감과 전쟁의 참상을 견뎌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참혹한 전장의 한 가운데에서 아끼던 부하를 잃은 돈은 전쟁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신병 노먼(로건 레먼)을 새롭게 받아 또 다시 새로운 전장을 향한다.

영화를 비롯한 많은 창작물들이 전쟁을 소재로 꾸준히 다루는 것은 전쟁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없기 때문이다. '퓨리'는 전쟁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노먼이 돈과 그의 전차부대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변화하는 과정을 냉철한 시선으로 담는다. 돈이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 없는 노먼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독일군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전쟁의 잔혹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더 잔혹한 순간은 전쟁의 비극을 외면하던 노먼이 어느 순간 자신의 "직업"에 쾌감을 느끼는 모습에 있다.

영화는 이러한 잔혹함이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도망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부대원들은 마지막으로 술을 나눠 마시며 평화로운 순간을 즐긴다. "우리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외치는 부대원들의 자조적인 표정에서 삶에 지친 현대인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퓨리'는 참혹한 현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공감가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 공감대는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등 출연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은 결과다. 전쟁영화다운 긴장감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주제가 오랜 여운을 남긴다. 15세 이상 관람가.

HOT SCREEN

잊고 지낸 명작 다시 만난다

극장가에 또 다시 재개봉 바람이 불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름을 알린 '메멘토'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걸작 '테스'는 20일 새롭게 리마스터링된 버전으로 극장을 찾는다.

'메멘토'는 '미행'에 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다. 지난 2000년 개봉 당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독특한 구성과 충격적인 결말로 영화계를 놀라게 했다. 기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뇌게임인 '메멘토'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메멘토

'테스'는 1891년 출간된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의 고전문학 '테스'를 스크린에 옮긴 영화다. 세계적인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지난 1979년 발표한 영화로 당시 신인이었던 나스타샤 킨스키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이번에 개봉하는 '테스'는 2012년 칸영화제 클래식 복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질을 최대한으로 구현한 4K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12월에도 명작 영화의 재개봉은 계속된다. 다음달 4일에는 레오 까락스 감독의 대표작 '퐁네프의 연인들'과 제인 캐피온 감독의 걸작 '피아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관객과 만난다.

'퐁네프의 연인들'은 1992년 국내 개봉 당시 센세이셔널한 흥행을 기록하며 프랑스 영화의 붐을 일으킨 작품이다. 줄리엣 비노쉬·드니 라방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피아노'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여우조연상·각본상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두 영화는 무삭제로 재개봉한다.

테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극장을 다시 찾는다. 2004년 국내에도 개봉한 영화는 애니메이션 최초로 제6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기술공헌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장병호기자

거장부터 아이돌까지… '행복한 고민'

마이클 볼튼·블락비·보이프렌드 주말 콘서트

Top Stage

팝의 거장 마이클 볼튼, 아티스트 악동뮤지션·하동균, 아이돌 그룹 블락비·보이프렌드가 쌀쌀한 주말 저녁, 관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소울 보컬 마이클 볼튼은 21~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한다. 지난달 KBS2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그는 1980년대 팝 시장을 이끌었으며 1990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팝 보컬상을 차지한 팝 음악계 거장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소향과 서지안이 게스트로 참여 한다.

실력파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은 21~23일 첫 투어 콘서트 '악뮤캠프'로 관객을 만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악동뮤지션은 '200%' '기브 러브' 등 데뷔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과 지난달 기습 공개돼 서태지와 경합을 벌인 '시간과 낙엽'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수 하동균은 2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년 만에 단독 콘서트 '워드'를 연다. 지난 14일 발매한 미니앨범 '워드'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 관객을 위한 히트곡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하동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가을 주말 저녁 진한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악동뮤지션
마이클 볼튼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블락비는 22일·23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14 블락버스터 리마스터링'으로 팬과 만난다. 공연은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최근 발매된 리더 지코의 첫 솔로곡 '터프쿠키' 무대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연 종료 후 대기실로 초대하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그룹 보이프렌드는 2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2014 보이프렌드, 더 퍼스트 챕터인 서울-비위치'를 연다. 데뷔 3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위치'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보이프렌드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멤버 각자의 솔로 무대와 특별한 유닛 공연을 준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펼치세요, 꿈을.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드디어 기다리던 '슈퍼스타K' 최종전이 있는 날이네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참 좋아하다가 잠시 시들해졌는데 '슈퍼스타K'를 다시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허각·존박·서인국·악동뮤지션 모두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실패도 하고 부딪히며 깨지는 과정을 거쳐 결국 지금의 자리를 얻었어요.

주먹 안에 다이아몬드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평생 아무도 모른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보석 같은 능력을 용기내 펼치세요. 끝끝내 주먹을 펼치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무도 내 진가를 못 알아준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가수들 중에서 최고라는 김범수와 이승철 씨에게 지적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또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이라도 받을 기회를 만들었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의 같은 말은 '실패해도 도전해 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러시아의 아티스트 스베틀라나 코로소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편리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항상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녀에겐 네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일에 집중하느라 그녀는 다른 화가들처럼 꾸준히 앉아 유화작업을 진행할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 그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어릴 적 동화의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지워야 하는 작품이기에 그림을 그린 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녀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화가라는 자신만의 꿈을 위해 손바닥을 펼쳤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꿈을 위해 무엇을 펼쳐볼까요?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슈퍼스타K' 가고 'K팝스타' 온다

주말엔 본·방·사·수 ON-AIR

SBS 'K팝스타4' 박진영·양현석·유희열(왼쪽부터). /SBS 제공

곽진언

김필·곽진언 '슈스케' 결승…YG·JYP·안테나뮤직 'K팝스타' 경쟁

이번 주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엠넷 '슈퍼스타K6'는 결승전을 통해 최고의 스타를 배출하고 SBS 'K팝스타4'는 본선 첫 번째 이야기로 한류의 미래를 책임질 아티스트를 찾아 나선다.

김필과 곽진언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슈퍼스타K6' 생방송 결승 무대에 오른다. 시즌 내내 라이벌로 꼽힌 두 사람이 결승에서 맞붙게 돼 우승자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김필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무대 연출, 곽진언의 중저음 보컬과 수준급 편곡은 매회 심사위원의 극찬을 이끌어 냈다. 김필은 결승전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곽진언은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요즘 음악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곽진언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김필을 언급했다.

둘의 스타성도 뛰어나다. 그 동안 방송을 통해 발표된 경연 곡은 국내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기성 가수들과 팽팽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라이벌 경연에서 두 사람이 부른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지난주 탈락한 임도혁과 '벗님들'이라는 팀을 이뤄 부른 '당신만이'는 발표 직후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려질 최종 우승자는 총 5억원의 상금을 받고 음반 발매,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의 특별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얻는다.

SBS 'K팝스타' 시즌4 첫 방송에서는 가창력을 논할 수 없는 아티스트형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그 중 한 참가자는 소름 돋는 전율을 선사해 심사위원들이 "그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이라며 입을 모아 감격했다는 후문이다.

박진영 심사위원은 지난 17일에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올해는 호흡과 발성을 언급할 수 없는 아티스트형이 많다"며 "산울림의 김창완에게 발성을 지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참가자만의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이어서 전주만 듣고 합격 버튼 누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즌은 YG·JYP·안테나뮤직, 국내 3대 기획사의 캐스팅 전문가가 1라운드부터 함께 해 각 회사의 색깔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낸다. 악동뮤지션·이하이 등 세대를 아우르는 뮤지션을 배출한 'K팝스타4'는 한층 더 막강한 참가자들로 오는 23일 일요일 오후 4시50분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주말엔 이 노래

에이핑크, 소녀에서 '여인'으로…아련 감성 자극

곡 구성·안무·의상 3박자 귀여움 벗어

걸그룹 에이핑크(박초롱·윤보미·정은지·손나은·김남주·오하영)가 8개월 만에 돌아왔다.

에이핑크는 미니 5집 '핑크 러브' 발매를 기념해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JBK컨벤션홀에서 쇼케이스를 가졌다. 섹시 콘셉트가 득세하는 가요계에서 에이핑크는 내적 변화를 내세웠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숙해 가는 그들만의 아련한 감성을 담은 것이다.

에이핑크는 쇼케이스 무대에서 타이틀 곡 '러브'와 '시크릿' 두 곡을 선보였다. '러브'는 힙합 리듬의 댄스곡이지만 슬픈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멤버들은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이 떠올라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시크릿'은 드라마 '구가의 서' '상속자들'에서 OST를 작업한 이원희 음악감독이 만든 R&B 장르의 곡이다. 미디엄 템포 리듬과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간다.

이밖에도 앨범에는 리더 박초롱이 작사에 참여한 '워너비', 힙합과 펑키 사운드가 어우러진 '천사가 아냐',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와 '굿모닝베이비'를 만든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한 '동화 같은 사랑'이 포함됐다.

아울러 에이핑크의 첫 유닛인 'BnN(보미&남주)'의 곡 '마이 달링'과 데뷔 3주년 기념 곡인 '굿모닝 베이비'가 히든 트랙으로 CD 음반에만 포함돼 소장가치를 높였다. 멤버 보미와 남주로 구성된 유닛은 아직 활동 계획은 없으며 둘의 무대는 앞으로 열릴 콘서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JBK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니앨범 5집 '핑크 러브(PINK LUV)'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곡 구성부터 의상, 안무 등 에이핑크의 변화는 확실하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만난 에이핑크는 감성적인 변화에 주력한 기존보다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정은지는 "이번 앨범은 가사에서 아픔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에이핑크보다 조금 더 성숙함을 보여드린 것 같다"며 "안무와 표정 하나하나 웃음기를 뺀 것도 성숙한 변신"이라고 말했다. 손나은은 "멤버들 개개인이 모두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외모적으로도 그렇다. 막내 하영이도 이제 스무 살이 된다"고 설명했다.

에이핑크 멤버들은 가수 이외에도 드라마·시트콤·예능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멤버들은 이같은 외부 활동이 그들의 내적 변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지는 "연기할 때 대본 분석을 하다보니 노래를 할 때 가사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보는 힘이 생겼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시야가 생겼다.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연습생 시절을 거치지 않아서 카메라 앞에서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연기를 하며 자신감을 찾았다.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박초롱은 "드라마를 하면서 '에이핑크 박초롱'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보니 책임감이 생기더라. 멤버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이 많이 들었다"며 "연기 경험이 뮤직비디오에서 감정연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핑크는 21일 KBS2 '뮤직뱅크'로 컴백 신호탄을 쏠 예정이다. 미니 5집 '핑크 러브'의 음원은 24일 자정에 공개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JYJ, 그룹 결성 이후 첫 일본 돔 투어

데뷔 10년…우여곡절 많았지만 인생 공부 된 시기
30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건강이 중요
연락 자주 못해도 괜찮아…곁에 있는 것 자체로 큰 힘

그룹 JYJ(재중·유천·준수)가 2010년 결성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돔 투어 '2014 JYJ 재팬 돔투어-이치고 이치에'를 개최했다. 이들은 18·19일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3·14일 오사카돔, 23·24일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JYJ는 19일 공연을 앞두고 그동안 일본 활동과 공연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 JYJ로서 돔 투어는 처음인데 소감은 어떠한가.

"어제 공연이 시작이었는데 이정도로 긴장된 건 정말 오랜만이다. 밥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떨어트릴까봐 걱정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긴장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연기를 잘 했나보다." (유천)

"한 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신곡을 이번 공연에서 먼저 선보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팬들의 응원에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재중)

"돔에 선다는 것은 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다. 더군다나 JYJ로서 돔 투어를 하는 게 처음이라 더 특별하다. 활동을 자주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마다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다." (준수)

◆ 새 싱글 '웨이크 미 투나잇'을 정식 발매에 앞서 이번 공연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앨범을 준비하며) 타이틀곡으로 하면 좋을 곡들이 많았다. 돔 투어를 앞두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웨이크 미 투나잇'은 '훅(후렴구)'이 듣기 편하다. 또 일본색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음악색이 잘 나타난다. 여러 장점이 어우러진 노래다." (준수)

◆ 어제 공연에 앙코르곡으로 동방신기의 '비긴'을 불렀다.

"추억이 많은 곡이다. 우리들의 노래였기에 공연에서 늘 부르고 싶었지만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팬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를 하나 준비하고 싶어 '비긴'을 선택했다. 또 가사가 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 (준수)

◆ 올해로 데뷔 10주년인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지난 10년은 휘황찬란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통의 20대의 삶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50·60대가 돼도 20대는 잊을 수 없는 10년이 될 것 같다. 지난 시간은 좋든 싫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인생의 공부가 된 시기였고 후회 없는 행복한 10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준수)

◆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 서로가 무척 소중한 존재일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대화가 필요할 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상 멤버들이 곁에 있다. 그런 게 참 고맙다." (유천)

"최근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든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워낙 가까운 사이라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심심할 때마다 대화도 주고 받고 이상한 사진도 보낸다. 메신저이기는 해도 기댈 곳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된다." (재중)

"항상 상상하는 것이 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분명 나는 지쳤거나 오지 못했을 것이다. 3명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 문득 옆을 보면 멤버들이 서있다. 그걸 보면 '10년간 이렇게 함께였구나' 싶어서 울컥한다. 예전에는 연락이 뜸하면 서로 삐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 만에 만나도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난 것 같다." (준수)

◆ 한류와 K팝이 침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JYJ는 일본 시장에 집중하지 못했는데도 인기가 좋다.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후배 가수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우리는 K팝 아티스트로서 한류의 열기를 타고 일본에 진출한 것이 아니다. 일본 시장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일본에서 처음부터 일본어로 앨범을 냈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과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도 팬들이 공연을 많이 찾아주는 이유는 나도 궁금하다(웃음). 누군가에게 충고하기는 조심스럽다. K팝 스타라고 해서 처음부터 큰 스케일로 시작하기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 그 후에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순서라 생각한다." (재중)

◆ 30대의 JYJ는 어떤 모습일까.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자주 봤으면 한다." (유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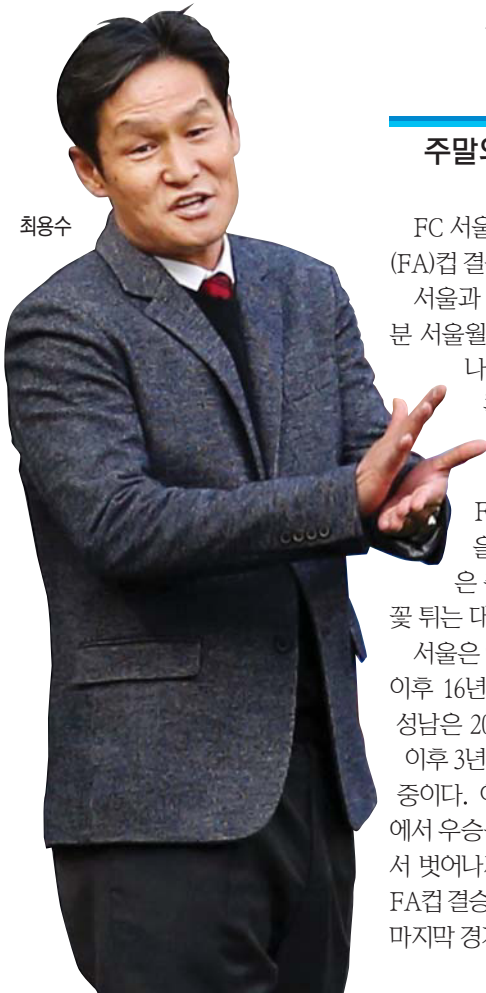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20대를 보냈다. 30대도 그러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재중)

"먼 미래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늘 내일 할 일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30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먼 미래를 그리게 되더라. 서른다섯 살, 마흔 살까지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 상상을 자주 한다. 빈말이 아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웃음). 연예인 JYJ의 생명력이 이어져서 함께하든 아니든 셋이 언제나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럴 게 죽을 때 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준수)

/도쿄=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김아람

AFC 챔피언스리그 직행권 주인공은?

서울-성남, 23일 FA컵 맞대결…자존심 건 명승부 예고

최용수

주말의 핫스팟

FC 서울과 성남 FC가 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맞붙는다.

서울과 성남은 23일 오후 2시15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4 하나은행 FA컵 결승전을 치른다. FA컵 우승팀은 상금 2억원과 함께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두 팀은 총력전을 펼칠 각오라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서울은 안양 시절인 1998년 우승 이후 16년 만에 정상에 도전한다. 성남은 2011년 통산 두 번째 우승 이후 3년 만의 '왕좌 탈환'을 준비 중이다.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을 놓친 서울과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남으로서는 FA컵 결승전이 팀의 자존심을 살릴 마지막 경기다. 특히 우승상금보다 중요한 것은 AFC 챔피언스리그 직행권이다.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한 전북 현대와 2위 수원 삼성이 내년 있을 AFC 챔피언스리그 직행권을 차지한 가운데 4위로 밀린 서울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지는 3위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규리그 2경기 만을 남긴 상황에서 3위인 포항 스틸러스와의 승점 차가 3점으로 벌어진 서울은 이번 FA컵 우승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설 수 있는 보험을 미리 들겠다는 각오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FA컵 우승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승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은 근육 파열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한 '플레이메이커' 몰리나가 복귀했고 축구 대표팀의 중동 원정에 합류했던 차두리도 팀에 복귀하는 등 정상 전력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홈 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된다.

이에 맞서는 성남 역시 우승에 목이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성남은 역대 FA컵에서 두 차례(1999년·2011년) 우승과 세 차례 준우승(1997년·2000년·2009년)을 따낸 전통적인 축구 명가다. 하지만 성남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11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꼴찌' 상무와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규리그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다음 시즌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팀의 사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성남은 이번 FA컵 결승을 '강등권 탈출'을 위한 분위기 전환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뿐이다. 서울보다 화력이 떨어지는 만큼 성남은 '선수비 후공격' 전술을 기본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kimc0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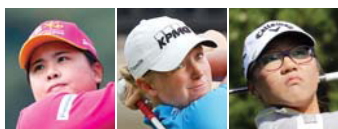
김학범

박인비·루이스·리디아 고 같은 조

LPGA 시즌 마지막 경기 상금왕 경쟁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4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세계 랭킹 2, 3위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리디아 고(17)와 함께 같은 조에 편성돼 1·2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이 경기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골프장(파72)에서 열린다.

20일(한국시간)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조 편성에 따르면 마지막 3개 조는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포인트를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세계 랭킹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인비·스테이시 루이스·리디아 고가 같은 조로 묶였다.

또한 4~6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셸 위·유소연·펑산산도 같은 조로 경기를 펼친다. 7~9위인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최운정·캐리 웹도 같은

박인비·루이스·리디아 고.

조가 됐다.

박인비와 루이스, 리디아 고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도 1, 2라운드에서 같은 조로 격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을 둘러싸고 박인비와 루이스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인비와 루이스는 한 시즌 동안 LPGA 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서 각각 229점과 226점을 차지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상위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는 격차다.

또한 상금왕 경쟁에서도 루이스가 시즌 상금 250만2309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박인비가 220만9460 달러로 그 뒤를 쫓고 있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걸린 총 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원) 중 우승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가져가는 선수가 상금왕이 된다. 이번 대회에 걸린 보너스 상금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도 상금왕 결정에 한몫을 할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프로배구 전적 20일

KGC인삼공사	1	3	도로공사
삼성화재	3	0	OK저축은행

프로농구 전적 20일

SK	17	25	18	17	**77**
모비스	22	18	19	9	**68**
오리온스	13	14	16	12	**55**
전자랜드	11	22	23	13	**69**

아스널 vs 맨유 '부상 공백 어떻게 메우나'

주말의 스포츠월드

무너진 명가…EPL 12R 재건 나서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 /AP연합뉴스

2014-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영원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아스널이 맞붙는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한 채 나란히 리그 7위와 6위에 머물고 있다. 리그 4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1점차 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를 통해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아스널과 맨유는 오는 23일(한국시간)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이번 시즌 EPL 1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현재 아스널은 승점 17점으로 6위, 맨유는 승점 16점으로 7위에 올라 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팀은 리그 1위 첼시를 제외하고 사우샘프턴·웨스트햄·스완지 시티와 박빙의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축구 명가의 부진 외에도 양 팀은 나란히 부상 선수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며 자연스레 경기력은 약화됐다. '동병상련'의 두 팀은 이번 경기에서 질 경우 팀 사기 하락은 물론,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이길 경우는 상위권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맨유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아스널전에 부상으로 인한 결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은 주전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24)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웨인 루니(29)·로빈 판 페르시(31)·제임스 윌슨(18) 등의 공격진은 멀쩡하다는 것, 부상 중인 라다멜 팔카오(28)도 복귀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마르코스 로호(24)·마이클 캐릭(33)·달레이 블린트(24)·루크 쇼(19)·앙헬 디 마리아(27)·필 존스(22)의 회복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수비진과 핵심 미드필더가 빠진 상태, 또는 100% 컨디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맨유다.

아스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메수트 외질(26)·마티유 드뷔시(29)·로랑 코시엘니(29)·올리비에 지루(28)·미켈 아르테타(32)·대니 웰벡(23) 등의 주력 선수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회복 상황에 따라 맨유전에 나설 선수도 있지만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당일 컨디션, 그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Handel Messiah &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 서울시합창단 ·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 소프라노 박미자 ·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 테너 신동원 ·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오늘 뭘 입지?” 고민 말고 스마트폰 터치

패션 앱 ‘스트릿웨더’ 날씨에 맞는 옷 추천

사람이야기

■ 권영재 와이즈랩 대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출근 전 누구나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만약 환절기라면 고민은 커진다. 겉옷을 챙기자니 낮에 활동하기 불편하고 반팔만 입기에는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다.

와이즈랩 권영재 대표도 “오늘 뭐 입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일기 예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패션 콘텐츠를 접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스트릿웨더’라는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을 가동하면 그날 날씨에 맞는 패션 아이템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온도에 맞는 옷을 고를 수도 있는데 요즘같은 때는 따뜻하면서도 날씬해보이는 외투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신도리코 연구소 책임연구원 출신인 그는 날씨와 패션 그리고 SNS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가치’를 만들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날씨에 맞는 패션을 제안한다는 발상이 독특하다

계절이 바뀌면 어떤 옷을 장만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새로운 옷이 필요하거나 어떤 옷을 입어야 감각있다는 소리를 들을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계절의 패션 트렌드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인기 있을지 예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패션 피플’이 올린 사진들이 기온, 하늘상태 등을 분석하는 스트릿웨더의 알고리즘을 거쳐 매일 50여장씩 업데이트 된다. 현재는 서울 날씨에 어울리는 패션만 보여주지만 향후 국내 주요 도시와 도쿄, 홍콩 등 아시아 도시의 패션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패션 피플은 누구를 말하나

이른바 패션 파워 블로거와 페이스북 스타 2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계절을 앞서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중 여럿이 동시에 착용한 아이템이 몇 주 후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것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우리 앱을 가르켜 ‘스트릿 패션 매거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만큼 패션 피플의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 ‘오늘 뭐 입지?’ 고민 말고 스마트폰 터치일 것이다. 스트릿웨더는 지속적으로 패션 피플을 섭외하고 그들로부터 사진을 받고 있다.

스타트업임에도 유명인들의 참여가 많다

자금, 인력 모든 게 부족하다보니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패션 블로거와 페이스북 패션 피플을 우리 서비스에 참여하게 한 후 그들의 팔로워에게 우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팔로워 대부분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 패션 피플 중에는 박병창·강경민·한아름송이 등 패션 얼짱이 포진하고 있다. 포스팅 하나에 수천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사람들이다.

수익 모델이 궁금하다

사진 속 옷이나 아이템을 파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릿웨더에 패션 업체를 입점시키는 것이다. 스트릿웨더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해당 내역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면 일종의 캐시백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입점 업체는 판매와 동시에 SNS에 홍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입점 브랜드와 시즌마다 오프라인 벼룩시장을 열어 론칭쇼도 병행할 계획이다.

와이즈랩 권영재 대표가 ‘스트릿웨더’ 앱을 알리는 모형 스마트폰 옆에 있다. 옷걸이와 우산이 결한한 이미지에서 이 앱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와이즈랩 제공

현대제철, 국가품질 명장 배출

현대제철은 19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김병집(가스기술팀) 계장이 국가품질 명장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품질명장이란 10년 이상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장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해 대통령이 직접 지정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김병집 계장은 가스기사를 포함해 총 17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업무와 관련해 265건의 활발한 제안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품질활동을 통해 업무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는 등 품질혁신 활동에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던 손일만(B열연 압연부) 기장이 품질경영 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표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병집 계장은 “업무를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작업의 효율화 등을 위한 활발한 제안활동을 계속해 품질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수상으로 총 11명의 국가품질 명장을 배출하게 됐다.

/김민준기자 mjkim@

한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인증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식음료 계열사인 한화B&B(대표 박종엽)가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갤러리아의 카페사업 부문이었던 ‘빈스앤베리즈’를 한화B&B라는 별도의 회사로 분할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지 1년만이다. 특히 한화B&B는 대기업 계열 최초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한화B&B는 전국 36곳에서 델리카페 ‘빈스앤베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 200여명은 모두 정규직이다. 주말이나 피크타임때 충원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직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3월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바 있다.

또 매장직원의 40%(80여명)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화B&B는 매장의 주 원재료 매입시 15% 이상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연간 30개 이상의 골목카페에 운영 노하우와 음료 레시피를 전수하고 있다.

한화B&B는 사회적기업 인증 획득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취약계층의 인건비 지원, 각종 기금 지원 등의 혜택은 받지않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목적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아닌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수익의 3분의2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도 수익 전부를 재투자 하기로 결정했다. 한화B&B의 주주 역시 배당금을 포기하고 이를 공익사업과 직원 복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종엽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 한화 B&B의 비전은 더 많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한화B&B가 모범적 사회적기업으로 영세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예술을 품다"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전경.

/마리나 베이 샌즈 제공

건물 내·외부 조형 예술물 가득… 동남아 최초 레오나르도 다빈치 진품 전시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금문교, 영국의 빅벤, 프랑스의 에펠탑,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행객에도 잘 알려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 2010년 6월 23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이곳은 동남아 최초의 도심형 복합 리조트다. 컨벤션 센터·박물관·극장·카지노·야외 공연장·호텔·스카이파크·웨딩홀 등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대표적인 마이스 시설 '(MICE, 회의(Meeting)·인센티브 관광(Incentives)·국제회의(Convention)·전시회(Ex hibition)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것으로 대규모 복합적 단지)'이다.

이곳은 두 장의 카드가 '사람인(人)'자처럼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듯한 200m가 넘는 3개의 타워 위에 축구장 3배 크기(1만2408㎡)만 한 배 모양의 343m 길이의 스카이파크까지 얹어진 세계 유일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 '무한대'라는 의미의 '인피니티(Infinity)' 수영장이 위치해 있다. 길이가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세 배인 150m에 달한다.

사탑 기울기가 5.5도인데 비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기울기는 최고 52도에 달한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경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레미콘 트럭 3만2500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투입됐으며, 약 2만㎞ 철근이 사용됐다. 이 철근을 이어 붙이면 남극에서 북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사프디(Moshe Safdie)가 설계하고 국내 기업인 쌍용건설이 지었다.

이곳을 방문했던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단지 마리나 베이 샌즈의 건축적인 측면의 위용이나 스카이 파크에서의 절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외부에 다양한 세계적인 예술품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마리나 베이 샌즈 예술의 거리(아트패스)'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6명 설치 작가의 작품들이 곳곳에서 눈길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미술품은 타워 1 내부 5층부터 12층 사이의 공중에 설치된 '드리프트(Drift)'라는 작품이다. 안토니 곰리가 1만6100개가 넘는 스틸 로드와 8320개의 스틸 노드로 제작한 3차원 스테인리스 스틸 다면적 매트릭스이다. 길이 40m, 높이 23m, 폭 15m에 달하며 무게는 14.8톤에 달한다.

호텔 외부에 설치된 네드 칸 (Ned Kahn)의 와이드 아버(Wind Arbor·**사진**)는 마리나 베이 샌즈 예술의거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이다. 면적은 6800㎡에 이르며 올림픽 규모 수영장의 다섯 배가 넘는다고 한다.

'넓은 지느러미'를 닮은 26만 개의 알루미늄 판금으로 이루어진 이 조형물은 상업 중심 지구를 마주 보고 있는 호텔 아트리움 서쪽 전체의 배경 구조물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조트 북쪽 끝에 있는 공조 탑을 에워싸고 있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연출하고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 리조트 설계자인 모셰 사프디가 가장 공을 들였다는 대형 '연꽃' 부속 건물인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거장들의 작품 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박물관에 살바도르 달리·앤디워홀·빈센트 반 고흐 등 20세기 주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거쳐갔을 정도다.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진품들이 연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이를 관람하기 위해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부터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건축가이며 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됐다.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13점씩 총 26페이지의 진품 메모가 교체로 선보인다.

또 전시회에는 다빈치의 노트북 69 페이지 복제품이 전시되고, 5개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두는데 수학·자연과학·테크놀로지·건축·음악적 천재성을 나눠 보여준다.

/싱가포르=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연탄으로 따뜻함을 전합니다! 20일 이동우(오른쪽 아래에서 세 번째)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표와 신입사원, 외국인 연기자 등 롯데월드 어드벤처 임직원 50여 명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온정나눔 연탄배달'은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이날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연탄 1만 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글로벌 복합리조트 시대 막 올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

국내에도 글로벌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시대가 막이 오른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인천 영종도에서 국내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7개월만으로 회사는 숙박·쇼핑·오락·공연등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파라다이스시티를 한국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대지 면적 33만㎡에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돼 700객실 이상을 보유한 특1급 호텔과 스카이 카지노, 한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K-플라자 등이 들어선다. 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과 실내형 테마파크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급형 스파 등도 건설된다.

특히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복합리조트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오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호텔과 카지노, K-플라자 등이 우선적으로 문을 연다.

아울러 회사는 파라다이스시티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내 교통센터에서 리조트 입구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1.1㎞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 가능하며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시티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정에서는 고용 1만2408명·생산 1조8219억원·부가가치 5776억원, 사업운영 과정에서는 고용 76만6263명·생산 6조3729억원·부가가치 2조6662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동시에 한국 관광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한식 '캐주얼 뷔페'로 인기몰이

대기업도 경쟁적으로 매장 설치 고객 잡기 나서

요즘 한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 한식'의 명맥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대 욕구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트렌디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추장이나 간장 베이스 일색이던 떡볶이에 카르보나라, 카레 소스로 버무린 신메뉴가 등장한 것이 좋은 예다. 또 온갖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 내놓던 김밥의 경우 핵심 재료만 넣은 형태로 변했다가 아예 쌈을 싸먹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반찬·국·밥 등 한 상차림으로 먹던 보편적인 한식도 이제는 뷔페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음식점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캐주얼 한식 브랜드 스쿨푸드는 한국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떡볶이, 김밥을 '매운 카르보나라 떡볶이'와 '마리' 등으로 좀 더 캐주얼하고 트렌디 하게 재해석해 유명해졌다. 마리는 일반적인 김밥과 달리 식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기 위해 3가지 이상의 재료는 넣지 않는다. 한입 크기로 작아 여성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오징어 먹물·모차렐라 치즈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됐다. 최근 리뉴얼 오픈을 한 스쿨푸드 목동 현대백화점에는 고급 재료인 와규를 이용한 와규 마리와 상추·적채·다시마 등의 쌈에 싸여진 오픈쌈마리까지 나왔다.

스쿨푸드 '목동 현대백화점', 자연별곡 목동 2호점, 놀부NBG '화려한 식탁 N테이블' (왼쪽부터) /각 사 제공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잇따라 한식 뷔페 매장을 열고 있다.

코스 요리의 고급 한정식 또는 가정식 백반에서 벗어나 샐러드바에 한식을 결합한 한식 샐러드바로 외식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을 콘셉트로 판교에 첫 매장을 낸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거창의 60여 개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로 생산된 감자 등을 공급받고 있다. 현재 6개 매장을 운영 중인 1만원대 한식 뷔페로 국·쌈·육류·면류 등 식사와 반찬,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인기다.

신세계푸드의 '올반'은 '올바르게 만들어 반듯하게 차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곳의 메뉴들은 조리된 가공식품 대신 조리사가 매장에서 직접 만든 100여 가지의 음식들로 구성된다. 철원 오대미를 직접 도정해서 갓 지은 밥과 파주 장단콩을 바로 갈아서 만든 손두부, 지자체 및 지정 농장과 연계해 공급받은 신선한 친환경 쌈 채소 등을 맛볼 수 있다.

이랜드의 '자연별곡'은 지난 4월 론칭 후 10개 매장을 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식 뷔페다. 한식 샐러드바와 임금님의 수라상을 콘셉트로 1만원대 가격으로 다양한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서울·분당 등 수도권 시장에서 시작해 최근 대전·부산 등으로 매장을 넓히고 있다.

롯데리아도 한식뷔페 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 외식시장에서의 한식뷔페가 신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업계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은 낮추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NBG는 지난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 한식 샐러드 뷔페 '화려한 식탁 N테이블'을 새롭게 오픈했다. 한국의 자연(Nature)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선한 국내산 식재료와 최고급 와규 샤브, 무쇠 전통 가마솥 수육, 화덕 로스팅 보쌈 등으로 '먹는 재미'는 물론이고,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최종범의 작품을 매장 곳곳에 설치해 '보고 듣는 재미'까지 더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판촉전

서점 크리스마스카드 판매… 관련 이벤트도 다양

서점부터 유통 업계까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에 돌입했다.

서점은 크리스마스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영풍문고 종로점은 지난 17일부터 2015년 연하장과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비치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성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장식 소품도 판매 중이다.

가구 업계는 증정 이벤트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씰리 침대는 전국 매장 내에 마련된 크리스마스트리 게시물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과 공유하면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제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홀리데이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크리스마스가 대목인 완구 업계는 선물 수요를 반영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영실업은 '또봇 3단 합체 델타트론'을 선보인다. 3단 합체 로봇이지만 하나의 로봇처럼 보이는 일체감 있는 라인과 조화로운 컬러 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합체를 완성할 수 있는 또봇 어드벤처 Z, 또봇 어드벤처 X, 또봇 D를 비롯해 파워 글러브와 트레일러가 추가로 구성된다.

유통 업계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얼리 버드' 엄마 잡기에 나섰다.

옥션은 30일까지 '얼리버드 맘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고 중고 상품을 등록하면 장난감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머니를 제공하는 프로모션과 장난감 신상품 체험단 등을 진행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참이맛감자탕, 대통령상 수상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참이맛감자탕(대표 문윤봉)이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참이맛감자탕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 24시간 ARS 주문을 받는 물류 시스템과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맞춘 시설을 갖춰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로 꼽히고 있다.

이 업체는 참이맛감자탕 10팩 기획 상품을 21일 5시40분 현대홈쇼핑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아시아 3개국 볶음 면요리

추운 계절이 오면 따끈한 국물 면 요리가 인기지만 불 맛 살린 볶음면의 매력도 만만치 않다. 태국·중국·일본 3대 아시아 볶음 면 요리를 근사하게 완성하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볶음쌀국수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15kcal / 조리시간: 25분

[재료] 쌀국수 30g, 돼지고기 20g, 숙주나물 30g, 청고추·홍고추 각 1개

[양념] 대파 1/2뿌리, 마늘 1쪽, 생강·간장 각 1작은술, 굴소스·설탕 각 1큰술,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쌀국수는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후 끓는물에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둔다.
2. 돼지고기는 채썰어 놓는다.
3. 숙주나물은 꼬리부분을 다듬고 청고추·홍고추는 얇게 채썬다.
4. 파는 채썰고 마늘도 얇게 채썰고 생강은 다진다.
5. 팬에 기름을 두르고 ④를 넣고 달달 볶아 향을 낸다.
6.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굴소스와 분량의 양념을 넣어 1차로 볶고, 익어가면 준비된 채소와 쌀국수를 넣고 재빨리 볶는다.

◆볶음유니자장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660kcal / 조리시간: 30분

[재료] 국수 생면 200g, 춘장 약간, 양파 1개, 호박 1/5개, 다진 고기 50g

[양념] 다진 생강·다진 파·다진 마늘 각 1큰술, 정종·굴소스·간장 각 1큰술, 설탕·참기름·식용유·녹말물·조미료 각 약간,

1. 식용유와 춘장을 1대 1의 양을 팬에서 2~3분정도 중불에서 팍팍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볶고 호박·양파는 잘게 썬다.
2.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고기·대파·마늘·생강 다진 것을 넣어 10초 정도 볶은 다음 정종과 간장을 넣고 채소와 함께 볶는다. 양파가 3분의 1정도 익으면 볶아 놓은 춘장을 넣고 다시 한번 볶는다.
3. 팬에 물 80cc를 넣고 설탕·굴소스·조미료로 간을 한다.
4. 생면은 삶아서 잘 씻어 소스에 넣고 다시 한번 볶은 다음 녹말물로 농도를 맞추고 참기름을 둘러 마무리한다.

◆해물볶음우동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35kcal / 조리시간: 40분

[재료] 소면 100g, 호박·당근 각 1/4개, 표고버섯 1개

[육수] 우동면 200g, 새우 4마리, 홍합 100g, 오징어 1마리, 양배추·양파 1/4개, 마늘 2톨, 피망 1개, 청주 1큰술

[양념] 굴소스 2큰술, 우스터소스·간장 각 1큰술, 설탕 1작은술, 참기름·후춧가루·가쓰오부시 각 약간

1. 양배추·양파·피망은 약간 굵게 채썰고 마늘은 얇게 저민다.
2.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먹기 좋게 썰고, 새우는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친다.
3. 홍합은 깨끗이 씻고 불순물을 제거해 살만 떼어 끓는 물에 데친다. 우동면은 부드럽게 삶아 물기를 빼 준비한다.
4. 프라이팬을 달궈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해물을 볶다가 청주를 넣어 수분을 날리고 양배추·양파·피망을 넣고 살짝 볶는다.
5. ④에 굴소스·간장·우스터소스·설탕을 넣고 볶다가 준비한 우동면을 넣어 잘 버무린 후 후춧가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하고 먹기 전에 가쓰오부시를 올려 함께 먹는다.

D-1 도서정가제, 서점가 막판 물량 떨어내기

"오프라인 서점, 빅 세일은 없어"… 시행 전 사람들 발길 많아져

르포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루 앞둔 20일 종로 일대 서점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빅 세일' 없이 자중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할인 전쟁에 들어갔다는 언론에 비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대대적인 할인은 없었지만 일부 매대는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마지막 물량 떨어내기에 나섰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는 점심시간이 임박해 오자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입구에서 좀 더 들어가자 막판 할인을 알리는 도서 매대가 들어왔다. 11월 1, 2, 3주차로 나뉘어서 일부 책에 한해 할인하는 해당 행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행사 포스터에는 "11월 20일 목요일 3주차 도서 모두 50% 할인"이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할인하지않는 책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할인 매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일부는 여러 권을 훑어보며 신중히 책을 구매하기도 했다.

교보문고는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전 마지막 할인을 진행 중이다. /김수정기자

이날 서점을 찾은 사람들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할인율이 기존 19%에서 15%로 낮아짐에 따라 체감하는 도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할인 매대를 구경하던 최여람(여·40)씨는 "내일부터 도서정가제가 바뀐다는 뉴스를 접하고 일부러 서점을 찾았다"며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가는 그대로라도 아무래도 도서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기적으로 책값을 지불하고 있는 엄마들은 균일가전을 하고 있던 그림책 매대에 몰렸다. 10여 종을 2000~6500원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대량 구매를 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영풍문고 종로점은 어린이 도서를 모아 30% 할인 중이었다.

5살 아이와 함께 온 주부 김미연(41)씨는 "평소 도서 대여를 자주 이용하는 데 책이 다양하지 않아 자주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나오는 편이다"며 "할인이 줄어든다고 해서 육아카페를 통해 공동 구매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서적을 찾는 사람도 많았다. 중고서적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 종로점은 굳이 할인을 하지 않아도 정가에서 50% 가까이 낮춰 판매하고 있었다. '개밥바라기 별' '엄마를 부탁해'와 같은 베스트셀러 외에도 토익 등 외국어 서적도 많게는 60%가량 내린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1권 가격에 2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구니에 많은 양의 책을 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10권을 구매할 생각으로 서점을 찾았다는 배은아(여·31)씨는 "할인율이 줄어 아쉬웠는데 앞으로 중고서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서점은 20일까지 물량 떨어내기에 집중했다. 교보문고는 마지막 반값 할인을 진행했으며 YES24는 "도서정가제 전 마지막 파격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최대 90%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 외에 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도 마지막 할인에 열을 올렸다.

할인과 쿠폰 발행·적립금 등이 무기였던 온라인 서점은 혜택이 축소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 할인 등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타격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패턴 재킷 입으면 나도 '오피스 패션왕'

비즈니스 캐주얼 연출법

이번 시즌 남성복이 격식을 벗고 부드러워졌다. 남성 슈트 브랜드 브루노바피가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 연출법을 소개한다.

상의와 하의를 다르게 입는 콤비 슈트는 이제 낯설지 않다. 겨울철에는 그레이·브라운·카키 등 톤다운된 컬러의 체크 패턴의 재킷이 인기다. 중후한 느낌이 드는 동시에 니트·코듀로이 등 따뜻한 소재의 옷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패턴 재킷은 드레스셔츠·넥타이와 함께 입으면 좀 더 포멀한 스타일로, 노타이 차림이나 터틀넥 스웨터 등을 받쳐 입으면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다.

평소 멋내기를 좋아하는 남성이라면 '소프트 패턴 재킷'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소프트 패턴 재킷은 말 그대로 기존의 각 잡힌 기존 슈트 스타일을 탈피해 부드러운 라인과 따뜻하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재킷으로, 신축성이 있는 저지 소재 재킷은 멋스러운 이탈리안 스타일을 손쉽게 완성시켜준다.

면바지·청바지·코듀로이 팬츠 등과도 두루 잘 어울리고 활동성이 높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버건디·머스타드·로얄블루 등 색감 있는 팬츠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남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어두운 컬러의 옷을 많이 입게 되는 만큼 팬츠로 컬러 포인트를 주면 보다 생기 있는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컬러 팬츠를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을 때는 특별히 재킷 컬러와의 매치에 신경 써야 하며 심플한 상의와 입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브루노바피양현석디자인실장은 "슬랙스·코듀로이 팬츠·치노 팬츠 등 다양한 컬러 팬츠가 시중에 나와 있으니 보다 과감한 스타일 변신을 원하는 남성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는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프레디족 사로잡는 상품·여행지

아이디어 용품 부터 주말 여행지까지 특수

최근 육아 TV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프레디족(Friend+Daddy) 트렌드가 젊은 아빠들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불황 무풍지대로 통하는 키즈 시장에 아빠들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캠핑 시장이 '프레디족' 덕분에 특수를 맞고 있다.

유아 용품 업계는 야외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간단한 장치만으로 휴대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순성의 비플래디(사진)는 앞 좌석 백시트에 장착하는 가방으로 내부 투명 케이스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장기리 이동 중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지루해하며 보채지 않도록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 줄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스트랩을 조절해 백팩으로 활용하면 된다.

캠핑 브랜드 콜맨은 동계용 침낭 나누크를 출시했다. 두툼한 두께로 얇은 텐트에서도 찬기가 올라올 걱정 없이 포근한 잠자리를 연출해주며 여러 개를 이어 온 가족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돌돌 말아 별도의 수납 케이스에 담으면 부피를 줄여 휴대가 용이하다.

최근 캠핑 도구를 따로 준비할 필요없는 글램핑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서울 근교와 경기 지역에 다양한 글램핑장이 생기며 이목을 끌고 있다.

파주 동화힐링캠프는 뛰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일반 글램핑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썰매장을 갖추고 있다. 여름에는 물썰매로 겨울에는 눈썰매로 100m 길이의 썰매장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에 위치한 에코어드벤처는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와이어·목재구조물·로프 등으로 연결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수정기자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수면장애' 조심… 50대 여성 환자 많아

겨울이되면 서밤이길어져 괴로운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면장애로잠을 이루지 못하는사람들이다. 이에 이향운(사진)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장에게 수면장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흔한 수면장애는 '불면증'이다. 2012년 수면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불면증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세불명 수면장애'와 '수면무호흡'이 그 뒤를 이었다.

불면증 환자는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어도 자주 깨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피로감이나 졸음 등의 주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우울증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으면 불면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보통 심한 코골이가 동반되며 깊이 잠을 이루지 못해 주간 졸림과 건망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또 수면무호흡증을 오래 방치하면 고혈압이나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50대 여성이 가장 많다. 낮 동안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촉진과 분비가 잘되지 않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 악화 등이 원인이다.

이 센터장은 "수면은 낮 동안 축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 증강 물질을 분비시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유나 연어 등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상추나 양파 섭취도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화보로 본 지스타 2014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지스타 23일까지 열전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Game is not over).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4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스타는 참가국과 업체, 부스 수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총 35개국에서 온 617개사가 2567개의 부스를 꾸리고 관람객을 맞는다.

개인 이용자를 맞는 BTC관은 109개사가 1397개의 부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TB관은 508개 업체가 1170개 부스를 차렸다.

특히 올해 BTB관 전시는 벡스코 제2전시장 전관을 사용, 지난해보다 2000㎡ 넓은 공간에서 열린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한-아세안 센터 등 국가·기관 공동관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게임쇼의 꽃’인 신작 공개도 40여종에 달한다. 넥슨이 15종의 신작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8종, 스마일게이트 4종 등이 첫선을 보여 게이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스타 조직위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한국 게임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힘을 합쳤다”며 “관람객 수도 역대 최고인 지난해(18만8000명)를 넘어선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연 ‘지스타 2014’에서 게임 속 캐릭터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지스타 2014에 입장하려는 게이머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뉴시스

지스타 2014 엔씨소프트 관에서 게이머들이 신작 ‘리니지 이터널’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스타 2014 엑스엘게임즈관에 ‘문명온라인’ 캐릭터 모델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지스타2014 넥슨관에서 외국인들이 넥슨 게임을 즐기고 있다. /넥슨 제공

게임대상도 모바일 세상

‘블레이드 포 카카오’ 대통령상

모바일 게임이 대한민국 게임대상 역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대세를 입증했다. 그동안 게임 대상은 PC 온라인게임이 차지해왔다.

20일 지스타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액션스퀘어가 개발하고 네시삼십삼분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포 카카오(for Kakao)’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9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이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차지한 것이다.

블레이드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6개월 만에 다운로드 500만건을 돌파하고, 국내 시장에서만 매출 900억원을 보인 흥행작이다.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 양대 마켓 인기 게임 1위를 석권하며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PC 온라인게임 못지 않은 타격감과 그래픽도 흥행 요인이다.

대한민국 게임대상 측은 “블레이드는 구현하기 어려운 액션 RPG를 대중화하는데 성공했고, 전투 게임 이용자를 모바일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며 작품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게임은 대통령상뿐 아니라 다른 수상 분야도 석권하면서 게임의 흐름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 왔음을 입증했다. 넷마블의 ‘세븐나이츠’는 인기 게임상과 기술·우수 캐릭터상을 받았으며, 넥슨 ‘영웅의 군단’은 종합 우수상·우수 사운드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심사에는 심사위원단 60%, 게임업계 전문가 투표 10%, 기자단 투표 10%, 네티즌 투표 20%가 반영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게임 구경도 메트로 ‘지스타 특별판’ 보고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연 ‘지스타2014’에 입장하려는 게이머들이 현장에서 배포된 메트로신문의 지스타 특별판을 들고 있다.

A MUSICAL BY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당신이 선택한 영웅, 세상이 기다린 그가 온다.
ZORRO®
THE MUSICAL
Final Ticket Open 11.5
2014.12.5~2015.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서영주 홍경수 조순창 김우형 휘성 박성환 Key 서지영 최미용 김여진 선데이 외
| 프로듀서 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서숙진 | 조명디자인 민경수 | 음향디자인 양석호 | 분장디자인 양희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박준 | 소품디자인 김상희 |
투자 하나투어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Free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BOOK AND LYRICS BY STEPHEN CLARK MUSIC CO-COMPOSITION / ADAPTATION, ORCHESTRATIONS AND ARRANGEMENTS BY JOHN CAMERON
ORIGINAL PRODUCTION CO-CREATED AND DIRECTED BY CHRISTOPHER RENSHAW
EXECUTIVE PRODUCERS: JOHN GERTZ, ADAM KENWRIGHT AND NANCY LARSON, GENERAL MANAGEMENT BY WILLEM METZ
WM
M

전입 해경 임용식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전입해경 임용식'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왼쪽)이 전입 해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요원 많은 공연장을

기자 수첩
김 지 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그룹 JYJ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2014 일본 돔 투어-이치고 이치에'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쿄돔은 최대 5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초대형 스타디움이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공연엔 약 5만 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이 정도 규모면 무질서와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 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은 질서 정연했으며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 장이나 행사장에는 으레 크고 작은 사고가 뒤따른다. 행사가 끝난 뒤 쓰레기가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좁은 출입구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달에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요원의 부재였다.

JYJ 일본 공연에서는 입장부터 안전요원이 따라 붙었다. 이날 공연을 취재하러 온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출입구로 들어서자 안전요원들은 기자들을 약 10명 정도로 나눠 순서대로 안내했다. 관객 역시 차분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5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많은 관객 수만큼 많은 안전 요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공연장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길 바란다.

"FTA 적기에 처리해야"

박 대통령, 여 지도부와 2개월만에 회동
"예산안·연금 개혁 등 현안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동한 자리에서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 16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청와대로부터 회동 제의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에서 최근에 새정치연합에 회동을 요청해온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새누리당 지도부 만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 공방

野 "5600억 지원 약속" vs 與 "사실 아니다"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20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4대강 예산 보류… 크루즈 활성화도 '제동'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심사 보류되거나 삭감됐다.

예산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을 국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예산 결정권이 없는 기구에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못낸다면 그럼 누가 낼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국가가 피해나갈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250억원을 감액,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도 50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주한 러 대사에 티모닌 북한주재 대사 내정

● 차기 주한 러시아 대사에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2012년 5월 주북 대사로 부임한 티모닌 대사는 다음달 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주재 대사로 부임하기 3년 전 러시아 외교부에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담당 특명 대사로 수개월 일했다. 그 전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다.

북한 "UN 결의안 배격… 전쟁 억제력 강화"

● 북한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대변인 성명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제안

●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용산 경마장 개장 안 된다"

박원순 시장 "시내까지 들어오는 건 본말 전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마사회가 다음달 중 용산 화상경마장오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저녁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번에 용산 화상경마장에 가 봤는데 도박 중독자들이 많더라"며 "그곳은 학교와 주택과 가까워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가 말 산업의 증진을 위해 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내까지들어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행산업은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외에 화상경마장 운영이 세수에 도움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세수에 도움된다고 다 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과거 혜화동 공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고 도움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직 선거운동만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전국의 모든 선출직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운영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통합 여부에 대해선 "그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은 얘기하는데 동시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노동조합이 반대하는데 서울시가 억지로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도심 배달용 0.5톤 전기트럭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전시된 택배용 전기트럭이 충전을 하고 있다. 전기트럭은 경유트럭에 비해 연료비가 5분의 1 수준이고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 서울시는 전기트럭 상용화를 앞두고 전기트럭 6대를 도심 택배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리로 얼룩진 서울 뉴타운

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온갖 비리가 만연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인 W사 회장 고모(52·구속)씨 등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있다.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W사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W사로부터 2008~2010년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주영기자 boa@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일부 서울지역 초·중·고교 급식에 차질이 생긴 20일 오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빵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파업 서울 84개교 급식 중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3개 노조 소속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2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들 가운데 60~70%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이어서 이날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9개교 소속 660여명으로 이 가운데 급식실 조리 종사원이 45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84개교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학교급식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고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했다.

또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경우 위생과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급식이 중단된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공지했으며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를 준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급식비 지급·근속인정 상한제 폐지·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기자

정 총리 "中어선 단속 강화… 감시시스템 개발"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중국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인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 지도선, 대형함정을 보강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의 우리 선상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ICT기반 감시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주영기자

학회 2곳 "수능 생명과학Ⅱ 8번 출제오류 인정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자문한 학회 3곳 중 2곳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8번 문항의 보기 '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 없어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당 문항은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과 관련,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보기 'ㄱ'과 'ㄷ'이 옳다고 보고 정답을 4번이라고 제시했지만, 보기 'ㄱ'이 교과서에서 다르게 기술돼 있다며 정답 2번도 맞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학회인 한국미생물학회는 정답이 평가원이 제시한 4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주영기자

"서울지하철 신호전문가 부족, 사고 위험 높아"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이후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가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부전문가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전, 기술, 경제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안전관리관' 조직을 시 도시교통본부 내에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점검단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신호를 담당하는 직원 370명 중 전공자는 221명(60%)에 불과했다.

점검단은 "신호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라"며 "인력 감소와 과중한 업무도 신호 관리자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주영기자

metro Russia

дый бездомный

metro Puerto Rico

전기료 체납 30만명 단전 위기

푸에르토리코 국민 30만 명이 암흑 속에서 살게 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푸에르토리코 전력공사(AEE)는 전기요금 납부일에서 2개월을 연체할 경우 취하던 단전 조치를 1개월 이후부터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요금을 체납한 약 30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AEE는 새 요금 정책으로 부실한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metro France

Gard : trois ados brutalis
le transformant en ballo

VIOLENCES – Trois jeunes adolescents qui ont martyrisé
transformant en ballon de football pourraient être poursuiv
plainte auprès de la gendarmerie.

고양이 학대한 청소년 고소

동물보호협회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세 명의 청소년을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프랑스 남부 도시 가르에서 12세 청소년 세 명이 고양이를 축구공처럼 다루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미디 리브르를 통해 동물보호협회장은 아이들이 돌을 던져 고양이를 나무에서 떨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이 고양이를 공중에 던지고 축구공처럼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부랑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캐릭터 키우는 이색 게임 인기 폭발… 한 달간 세계 80만명이 내려받아

모바일 게임 '부랑자의 성공 스토리'가 러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은 러시아 업체 '핫 게임스'가 애플의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지난 한달 동안 전 세계에서 80만 명 이상이 내려받았다.

부랑자의 성공 스토리는 캐릭터를 선택해 변화시키는 일종의 '부랑자 키우기' 게임이다. 먼저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부랑자의 외모와 머리 모양, 의상을 선택한다. 이후 부랑자에게 글을 가르치고 폐품을 팔아 돈을 모은다. 이용자의 레벨과 능력에 따라 부랑자는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갑부로 변신한다.

게임 이용자 미하일 다가이는 "게임 시작 화면에서 캐릭터를 정하면 그때부터 계속 관리해줘야 한다"며 "부랑자가 구두를 사고 옷을 바꿔 입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우스를 클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좀 귀찮은 게임"이라며 "어릴 적에 유행했던 애완동물 키우기 게임인 다마고치와 비슷하다. '폭풍 클릭'은 귀찮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바뀌는 모습은 재미있다"고 게임의 장단점을 밝혔다.

핫 게임스 측은 이에 대해 "게임의 목적은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회 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캐릭터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랑자 키우기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 중"이라며 "새로운 버전에서는 게임 캐릭터 간 대결이 가능하고, 사용자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整胸真人騷安徽妹出位
又一山西幫下馬
運沙車撞黑校巴
十二幼稚園童死
廣東水全國最差
天朝怪事一籮籮

물 끓여도 이물질 광둥성 수질평가 3년 연속 최하위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전국경제종합경쟁력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광둥성이 수질환경경쟁력과 생활오수 배출 항목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광둥성 주민도 지역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광둥성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일부 기업이 산업 오수를 몰래 버리고 있어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에 비싼 정수기를 구입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끓인 뒤 조금 있으면 용기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 수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샤오훙 중산대학 지리과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천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광둥성은 폭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고체폐기물이 쉽게 하류로 휩쓸려 들어가는 데다가 고온의 영향으로 악취가 쉽게 발생한다. 총체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이런 상황이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수처리 강화, 공장에 대한 규제·처벌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개 성과 시의 수질, 대기, 삼림 등 각종 환경과 자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홍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리=조선미기자

삼성전자 컬러너리 클래스.

LG전자는 미국서 고객 주방 리모델링 이벤트.

삼성·LG, 美·EU서 차별화 마케팅

올 3분기 가전 실적 부진에 총력전
'2015년 세계 가전 1위' 달성 기대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유럽과 북미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과 LG전자의 가전사업부는 올 3분기 다소 실망스런 성적을 거두었다. 반면 유럽과 북미 현지 가전업체들은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삼성과 LG가 글로벌 시장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과 LG는 프리미엄 제품과 현지 정서에 맞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반격에 나선다. 특히 유럽과 북미 주방가전 시장이 빌트인으로 꾸며지고 있는 만큼 단품 가전제품을 넘어서 프리미엄 주방솔루션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정상급 셰프를 가장 많이 배출한 프랑스 국립 요리학교 페랑디에 삼성전자 주방 가전제품으로 구성된 '삼성 컬리너리 클래스'를 열고 유럽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94년 역사의 페랑디가 일반인을 교육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래스는 냉장고, 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 가전으로 꾸며졌다.

삼성전자는 클래스를 운영하며 요리사와 수강생의 요구 사항을 향후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반영하면서 제품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네이트 버커스와 손잡고 고객 맞춤 주방을 제공하는 '미국판 러브하우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당첨자 로렌의 집을 방문해 수납 공간, 소음이 심한 구형 가전,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 주방을 선보였다.

대용량 냉장고, 더블 월 오븐, 가스 쿡탑,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오븐 등 1500만원 상당의 'LG 스튜디오' 패키지 제품은 물론 기능성, 편의성을 겸비한 가구 등 주방 전체를 개조해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이들 가족만의 주방을 완성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과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묻어난다. LG전자는 지난해 프리미엄 주방 가전 패키지 'LG 스튜디오'를 북미 시장에 론칭하며 고급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삼성과 LG가 '2015년 전 세계 생활가전 1위'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올 4분기 부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4050 은퇴 뒤 빚 폭탄

4050세대의 가계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40~50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는 전체 부채의 35%, 40대인 가구는 32%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40~50대에서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은퇴하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채 상환 가능성이 작아진다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층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보유자산 비율이 낮고 소득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의 가계대출은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계약구조 비중이 높아 은퇴연령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비율은 18%, 만기 일시상환 계약방식은 30% 비중이다. 미국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계약기간 30년 이상 비율이 64%에 이르고 일시상환 계약방식은 0.08%에 그친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소득은 물론 미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향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훈기자

우리 농업 살리자 전경련은 20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구내식당에서 경제4단체와 농민단체 간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준봉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전경련 제공

"대기업 증세, 5년전 이미 시작됐다"

"5년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계는 증세가 이미 이뤄졌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으나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14조9000억원 늘었고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 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박성훈기자 zen@

market index <20일>

구분	지수	등락
코스피	1958.04	(-8.83)
코스닥	539.93	(-0.91)
금리(국고채 3년)	2.16	(-0.02)
환율(원·달러)	1115.00	(+8.40)

뉴스&뉴스

홈플러스, 크리스마스 용품 판매
20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과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LG화학, 지멘스와 MOU

● LG화학이 전력엔지니어링 회사인 독일 지멘스와 ESS(Eergy Storage System)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LG화학은 지난 19일 독일 바이에른주 에를랑겐에 위치한 지멘스 본사에서 'ESS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향후 지멘스가 추진하는 ESS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지멘스도 LG화학의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2012년부터 총 3MWh 규모의 다양한 ESS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MOU를 발판으로 내년 50MWh규모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ESS 시장 공략에 한 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jkim@

스테판 메이(왼쪽) 독일 지멘스 CEO와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LG화학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차이나 외화정기예금' 출시 신한은행은 20일 개인고객의 투자 다양화와 기업고객의 위안화 무역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이나 Plus 외화정기예금(위안화)'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과 개인고객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달 예정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에 맞춰 출시됐다. 계좌별가입금액은 최저 1000 위안부터 최고 5000만 위안으로 4억 위안 한도로 판매된다. /신한은행 제공

금융사, 지배구조 확 바뀐다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축소… 이경재 KB지주 이사회 의장 사퇴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은 모두 공개된다.

또 CEO 선임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운영하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및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KB금융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신 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는 다양성과 내실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부과됐다. 특히 현재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은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금지시켰다.

최고경영자(CEO) 승계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상시로 구체적인 승계프로그램을 마련, 30일내 추천·선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후보군 관리 내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주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전체 551개 금융사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18곳의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던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전격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윤종규 신임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과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취임하는 윤 회장을 중심으로 KB금융그룹이 리딩 금융그룹으로 반드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에 떠나는 마음이 가볍다"며 "그 동안 성원해 주신 KB금융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장의 사임으로 LIG손해보험 인수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받아들일 경우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가족통합보험, 가족관계 변경되도 보장

금감원, 691개 상품 개선조치

앞으로는 가족 통합보험 가입자가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 위 사례처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개정된 보험상품 심사제도 변경으로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심사원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심사 없이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판매 전 신고를 통해 사전심사가 필요했다.

주요 개선 분야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민원발생을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춤 ▲보험 일반원칙을 준수 등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의 경우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자동차, 보증보험 제외)도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가지급보험금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방안으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대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험 일반원칙 준수에서는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 보험금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우리가족 힐링캠프' 개최 한화생명은 지난 17일부터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한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지훈 한화생명 홍보팀 상무,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들이 '우리가족 힐링캠프'에서 방문한 제주도 천지연 폭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신한BNP, 스마트 ETF 24일 상장

한국거래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스마트(SMART) 합성-MSCI 선진국(H)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ETF는 미국 등 23개 선진국에 상장된 1600여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세계 지수를 추종한다.

기존 상장 ETF와 달리 북미 지역을 포함한 선진국 투자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한BNP파리바는 이번 상장을 통해 ETF시장에서 17번째 신규 참여운용사가 됐으며 ETF 브랜드로는 'SMART'를 사용하게 된다.

이 ETF 상품의 상장 원본액은 약 310억원이며 1좌당 가격은 1만원으로 예상된다. 두 가격은 상장일 전날 최종 확정된다.

유동성 공급자는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이다.

이번 상장으로 전체 ETF시장의 상장 종목 수는 167개로 늘어났다. 올 들어 신규 상장 종목은 21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지역별 투자 스펙트럼이 확대됐다"며 "환헤지 상품이므로 기초자산 통화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기초지수의 등락에 대한 예측만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ING 생명, 개인별 맞춤 '무배당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ING생명은 사회 초년생부터 자녀가 있는 가장까지 3가지 플랜에 맞춰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무배당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기본형(1종) 외에도 예상 은퇴나이 전 사망 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형(2종), 오래 살수록 최대 150%까지 사망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상속자산형(3종) 등으로 구성됐다.

소득보장형(2종)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 시 설정한 예상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한다. 월급여금으로 유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의 1% 또는 2%를 사망 시부터 은퇴나이까지 매월 지급한다. 사망시점에 잔여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최소 60회(5년)를 보증 지급한다.

또 무배당 중대질병(CI)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할 경우 중대한 암을 포함한 중대 질병·수술·화상 발생 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대신 납입해준다.

이 상품은 이 밖에도 변액보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총 12종의 다양한 펀드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채권·주식 등 펀드 투자를 통해 보장금액 증대가 가능하다.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사망시점에 최저사망보험금도 보증한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1%~5%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이체 시에는 보험료 1% 추가 할인된다.

박익진 ING생명 마케팅본부를 맡고 있는 부사장은 "이 상품은 사회 초년생, 가장 등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기본적인 혜택 외에도 별도 비용 없이 상품을 연금 또는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Section 1. 칸의 선택
마미 • 맵 투 더 스타 • 리바이어던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투 데이즈 원 나잇 • 화이트 갓
Section 2. 거장의 새로운 이야기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 이별까지 7일 • 무드 인디고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11.27. Thu ~ 12.3. Wed
Section 3. 이야기의 시작, 모티브
갈증 • 꾸뻬씨의 행복여행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Section 4.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파리 폴리 • 질투 • 엘리제궁의 요리사
주최 • 씨네큐브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이채널 스크린 드라마큐브 채널뷰 패션앤 씨네프 흥국생명보험㈜ www.icinecube.com • www.facebook.com/cinecube • www.twitter.com/iCinecube
협력 그린나래미디어㈜ •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 노바엔터테인먼트 • 더블앤조이픽쳐스 • ㈜도키엔터테인먼트 • ㈜드림웨스트픽쳐스 • ㈜수키픽쳐스 • ㈜엣나인필름 • 영화사진진 • 오드 • 와이드릴리즈㈜ • 이수이앤씨 • 찬란 • ㈜티캐스트콘텐츠허브 • 판씨네마㈜ • ㈜프레인글로벌 • 프리비전엔터테인먼트
예술영화관의 대표브랜드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10대 증권사, 연말 환율 1088원 전망

내년은 상반기 1146원, 하반기 1032원대… '상고하저' 보일 듯

최근 세계 달러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상승하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연말 환율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0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사들의 직전 평균치인 1057원보다 30원 이상 상향된 수치다.

연말 환율을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1130원(잠정)이었다.

이어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의 전망치가 각각 1110원, 1105원으로 1100원 선을 웃돌았다.

유안타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연말 환율을 1090원으로 전망했고, 현대증권은 1085원, 신한금융투자는 1080원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 평균 기준으로 환율이 1080원일 것으로 내다봤고, 우리투자증권은 1075원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연말 환율이 103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포함된 10개 증권사 모두가 한 달 새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이다.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확대 정책을 결정한 10월 31일이 기점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BOJ가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예상외로 10월 말 양적완화를 확대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데에는 달러·엔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세계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매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한편 이들 증권사가 전망한 내년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069원으로 집계됐다. 상단 평균은 1146원, 하단 평균은 1032원이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환율이 고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는 내려오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6월 말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율이 2분기 1200원까지 오른 이후 하반기에는 점차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전망으로 볼 때 원화 강세 압력도 상당하다"며 "일본이나 유럽의 통화완화 정책이 저위험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가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경상흑자가 내년에도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불완전판매 처벌 강화해야"

보험대리점, 부당 승환계약 관행 조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당 계약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이번 설명회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GA의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행태에 대해 업계 전반의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승환계약을 관리해 부당승환 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업계는 최근 보험사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탈하는 반면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됐다.

불완전판매율이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판매율의 경우 2012회계연도 기준 GA는 9.1%로 생보사(3.8%)와 손보사(2.1%)보다 3~4배 이상 높다. 이는 방카슈랑스나 개인 대리점, 홈쇼핑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이주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아주캐피탈은 20일 서울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이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문(가운데) 아주캐피탈 전무와 직원들이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아주캐피탈 제공

김정태 회장에 '명예 해병증' 하나금융그룹은 20일 해병대 사령부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명예해병증'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명예해병증 수여식은 연평도 하나회관 기부와 다양한 군부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은행들, 외국인 주주에 4년간 3조 배당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

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주들에게 3조원 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SC·씨티 등 6개 금융지주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4645억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했다.

이들 금융지주가 같은 기간에 거둔 당기순이익은 28조5039억원(연결 기준)이다. 평균 배당성향은 15.7%다.

금융지주들은 외국인 주주가 많은 편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SC와 씨티를 비롯해 하나(70.1%), 신한(64.5%), KB(63.5%)도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이른다.

금융지주들의 4년치 배당금 가운데 2조8283억원(63.4%)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셈이다.

은행을 주력으로 삼는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국내 소비자 상대로 이자 차익을 내 순익을 올렸지만, 순익의 과실은 외국인에게 약 3분의 2가 주어진 것이다.

주요 비금융 상장기업과 비교하면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주주 대접은 한층 두드러진다.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58조5937억원의 순익을 내 5조6873억원을 주주에게 나눠줬다.

금융지주들보다 순익은 배 이상 많지만, 외국인 지분율(52.5%)을 적용하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2조984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자동차도 18조6782억원의 순익을 거둬 1조9476억원을 배당했고, 이 가운데 8690억원(44.6%)만 외국인 주주에게 줬다.

/김민지기자 minji@

대우·중흥건설, 평택서 빅매치 벌인다

삼성 효과↑… 소사벌·용죽서 동시 분양

삼성효과로 요즘 가장 뜨겁다는 경기도 평택에서 건설사간 빅매치가 벌어진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동시에 '소사벌 중흥S-클래스'와 '평택 비전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20일부터 동시 분양에 들어갔다.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청약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vs 민간택지 차이

차량으로 5분가량 떨어진 소사벌지구와 용죽지구 모두 평택의 주거 중심지인 비전동과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형성돼 생활 인프라와 비전고·평택고·신한고 등 우수학군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

입지는 서로 큰 차이가 없지만 택지지구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소사벌지구는 공공택지, 용죽지구는 민간택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소사벌지구는 총 302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1만6395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효성, 우미건설, 반도건설, 중흥건설 등의 민간건설사가 이곳에서 분양을 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공택지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하에 토지 이용이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구 내 교육시설, 상업시설, 녹지시설 등이 모두 들어서기 때문에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용죽지구는 74만여㎡ 규모로 4896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3차례에 걸쳐 약 2000가구를 분양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계획 중이다. 선호도와 인지도 높은 브랜드 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소사벌 중흥S-클래스(좌), 평택 비전 푸르지오(우) 투시도.

그러나 면적이 소사벌지구의 25% 수준에 불과해 체계적인 토지 이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우 '브랜드', 중흥 '분양가'

소사벌지구 B9블록에 들어서는 '중흥S-클래스'는 지구 내 민간아파트 중 가장 큰 1190가구로 전용면적 75㎡와 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중흥건설은 평택에 처음으로 짓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라는 점에서 단지 배치부터 신경을 썼다. 지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설계를 선보인 것. 84㎡ 992가구가 정남향으로 배치됐고, 75㎡ 198가구만 남동향이다.

큰 단지를 이용해 3864㎡ 대규모의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3개의 배드민턴코트를 갖춘 운동시설과 탁구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문고 등이 들어선다.

용죽지구 A3블록에 지어지는 '평택 비전 푸르지오'는 761가구에 불과하지만 향후 A2-1블록과 A4-1블록도 '푸르지오' 아파트가 계획돼 총 2000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5~119㎡로 설계됐다.

대우건설도 용죽지구 첫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2971㎡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시설 '유즈(Uz)센터'를 조성한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대형 어린이집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860만원대인 '중흥S-클래스'가 890만원대인 '평택 비전 푸르지오'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는 '푸르지오'가 우위라는 평가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내식 맛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인천공항 지원단지 소재 LSG스카이쉐프에서 아시아나 SNS 회원을 대상으로 기내식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나 제공

"스마트폰 앱, 권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서 어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시나요?"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PC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만 빈번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에는 일부 무료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손전등 인기 앱들의 프로그램 속에 교묘히 사용자의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명령어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번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보안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권한 허용으로 인한 악성 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스토어를 활용해 앱을 설치하면 대부분 별도로 권한에 대한 명시가 간략하게 표시돼 있거나 아무런 표시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용자 개인의 위치정보, 계정정보, 통화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막상 자세한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앱은 사용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데 이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사용자는 앱 설치 시 사용되는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모바일 기기와 시장환경에 맞는 보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로 예술 덧칠

'설렘의 시작' 주제로 혁신적인 '스크린' 특화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엣지'의 혁신적인 엣지 스크린에 특화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엣지 아트 스크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렘의 시작'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섬세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갤럭시 노트 엣지'의 디자인과 기능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각광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한계륜, 동양화가 이영지, 조각가 김민경 작가가 참여한다.

한계륜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달의 환상적인 모습과 이에 따른 설렘을 표현했다. 이영지 작가는 나무와 새를 소재로 소소한 일상의 설렘을 담아냈다. 김민경 작가는 감각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매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는 설렘을 표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엣지'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왼쪽부터) 동양화가 이영지, 조각가 김민경, 미디어 아티스트 한계륜 작가가 '엣지 아트 스크린' 작품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김민경 작가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공간인 '엣지 스크린'을 활용한 작품에 도전하게 돼 무척 설렜다"며 "많은 소비자가 '엣지 아트 스크린'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 엣지의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엣지 아트 스크린' 작품으로,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엣지 아트 스크린' 콜라보레이션 작품은 캠페인 사이트 (http://www.samsung.com/sec/galaxynoteedge/artscree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작품은 다운로드받아 '갤럭시 노트 엣지'의 엣지 스크린에 적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작품은 다음달 18일까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의 수도권 10개 지점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작가 인터뷰,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팬택 오늘 인수의향서 마감

새로운 주인을 찾아나선 팬택이 '벤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인 팬택의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은 21일이다.

최근 팬택 매각주간사 삼정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팬택 인수의향서 마감은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동안 삼성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 마감을 한 차례 늦춘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변경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직 공개적으로 인수의향을 밝힌 곳은 없지만 3~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가열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섣불리 인수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전자업계, 공모전으로 '아이디어' 찾는다

혁신적이고 생활 밀접한 제품 쏟아져

전자업계가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전자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새롭고 혁신적이면서도 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고 제품으로 실현시키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건강·의료, 교육, 지역사회, 환경·안전 등 4개 분야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1502개 참가팀 중 결선에 오른 40개 팀이 찾아낸 사회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최종 선발된 우수 솔루션에는 실제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 2억원의 실현 지원금도 후원한다.

LG전자는 지난달 '아이디어LG' 첫 선정작을 공개했다. 아이디어LG는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안·평가·제품화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도에 따라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 제도다. 제1차 선정작은 위험한 소리가 들리면 이어폰이 자동으로 음량을 줄이도록 설계한 '패션 안전 무선 이어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충전기 코드와 USB 단자를 내장한 '스마트폰용 케이스 충전기'였다. LG전자는 제안자와 협의하며 기존 아이디어를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디자인·색상·가격·제품명 등에 대한 소비자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제품을 생산해 유통, 마케팅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판매 수익금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일렉트로룩스 디자인 랩 2014 우승작인 '미래의 채집기'. /일렉트로룩스 제공

동부대우전자는 전자 분야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동부 전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지난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냉장고에 미닫이문을 사용함으로써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닫이 문 냉장고를 출품한 울산과학기술대 팀이 대상을 받았다. 또 이동형 초소형냉장고를 선보인 서울대 팀과 식기 뚜껑에 전자레인지 기능을 장착한 초소형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홍익대·동국대 팀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앞으로 가전 전문가들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제품화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도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글로벌 가전 기업 일렉트로룩스는 매년 전 세계 디자인 학도를 대상으로 가전 디자인 공모전 '일렉트로룩스 디자인 랩'을 운영 중이다. 20일 발표한 올해의 우승작은 홀로그램 게임을 통해 식료품을 쇼핑하는 프로그램 '미래의 채집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삼성SDI '소통 김치' 화제

삼성SDI 임직원들이 '소통의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소통 김치'를 담갔다.

삼성SDI는 지난 19일 기흥 본사에서 김장 행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SDI는 '소통 김치'를 통해 임직원 상호 간 뿐만 아니라 회사와 자매결연마을,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SDI 기흥 본사 '소통의 텃밭'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수확한 배추와 전북 부안의 자매결연 마을로부터 구입한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다. 이 '소통 김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0여명의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성SDI는 기흥 본사뿐만 아니라 천안과 울산 사업장에서도 김장 행사를 진행해 총 4700포기의 '소통 김치'를 지역의 이웃들과 나눌 계획이다.

'소통의 텃밭'은 지난 2012년에 약 1800㎡ 규모로 조성됐고 지난 10월에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실시한 '도시텃밭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명진 삼성SDI 인사팀장(전무)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랑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기아차, 2014 광저우 모터쇼 참가 기아차는 20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전시관에서 개막한 '2014 광저우모터쇼'에 참가, 소형 SUV 콘셉트카인 'KX3'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제공

아파트값 올해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말 대비 2.37%↑

지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2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3.79%, 0.13%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9·1부동산 대책 등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이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지만 11월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연간 2% 초반대의 오름폭이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57% 하락했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은 올해 1.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아파트값은 11월 현재까지 2.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5.88%)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역시 2009년에 1.24%가 오른 뒤 2010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72%로 상승 전환했다.

/김두탁기자 kimdt@

LGD, UHD TV용 패널시장 세계 1위

LG디스플레이가 울트라HD(UHD) TV 패널 시장에서 대만 업체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LG디스플레이는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가 최근 발표한 'TFT LCD 월간 리포트'에 따르면 10월 전체 UHD TV 패널 출하량은 205만대 규모로 LG디스플레이는 28.1%(57만8000대)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의 이노룩스가 24%(49만4000대)로 2위, 삼성디스플레이가 20.2%(41만5000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업체가 UHD 패널 시장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가형 UHD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대만 업체들을 2013년 1월 이후 22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UHD 패널 시장은 2012년부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80인치대 UHD TV를 내놓으면서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이 대형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중국 업체들에 UHD TV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에 패널을 공급하는 이노룩스 등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UHD 패널 시장을 장악하던 상황이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혁신적인 화소배열 구조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랜더링 기술이 결합된 M+기술로 차별화된 UHD 제품을 선보여 단기간 내에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애잔한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권기봉의 **도시산책** <103>

지난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시대 노동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구로공단의 역사를 전승하고,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여성 노동자들의 공로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지하 1층에 '공순이'라 멸시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쪽방들이 줄지어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때문에 '벌집' 혹은 '닭장집'이라 불렀는데 성인 한두 명만 누워도 꽉 찰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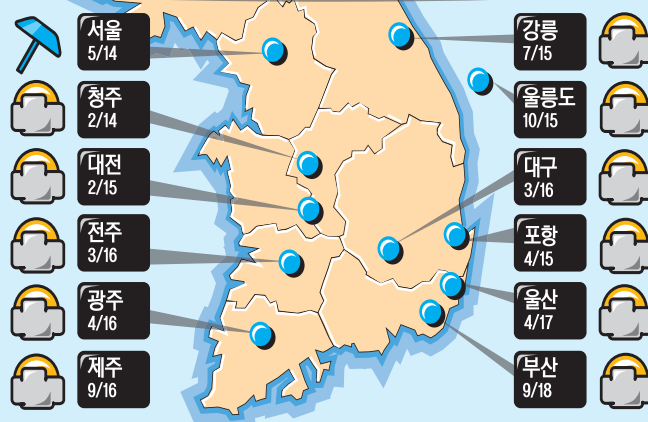
지상층에는 노동자들의 공장 밖 생활을 비롯해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야학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묘사해놨다. 영어 단어를 몰라 상표 하나 제대로 붙일 수 없던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구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시설의 이름에 자꾸만 눈이 간다. 노동자, 특히 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공장 노동자의 생활과 삶이란 것을 이런 곳에 와서 '체험'해봐야 할 정도로 노동자의 생활이란 게 이제는 접하기 힘든 역사책 속의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지금도 벌집들이 여럿 남아 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도시빈민이나 이주노동자, 특히 중국 동포들이 여전히 삶을 일구어가는 터전이다.

지난 1960~70년대보다는 나아진 듯하지만 이 시대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32.1%에 달하는 591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다. 50년 전에는 '공순이', 50년 뒤에는 '비정규직' 인생살이인 셈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과 의미에 시선을 주려는 시도가 반갑기는 하다. 그러나 양상은 다를지언정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 땅의 노동 현실을 마치 다 지나간 일처럼 다루는 듯한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을 돌아보다 보면 씁쓸한 생각이 쉬이 가시질 않는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5		
		6	1	5			3	4
2						8		9
7			9		5			
	9						4	
			6		1			5
6		7						3
3	2			6	4	7		
		4	2				9	

	3					6	1	
5	1							
7		9	6			2		
2				8	6			9
1				2				6
9			7	1				2
		8			4	5		1
							8	4
	9	1					2	

스도쿠 정답

1	4	8	3	9	2	5	6	7
9	7	6	1	5	8	2	3	4
2	5	3	4	7	6	8	1	9
7	6	1	9	4	5	3	8	2
8	9	5	7	2	3	1	4	6
4	3	2	6	8	1	9	7	5
6	8	7	5	1	9	4	2	3
3	2	9	8	6	4	7	5	1
5	1	4	2	3	7	6	9	8

8	3	2	9	4	7	6	1	5
5	1	6	8	3	2	4	9	7
7	4	9	6	5	1	2	3	8
2	5	4	3	8	6	1	7	9
1	8	7	4	2	9	3	5	6
9	6	3	7	1	5	8	4	2
3	7	8	2	9	4	5	6	1
6	2	5	1	7	3	9	8	4
4	9	1	5	6	8	7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정부기관 승진 안되면 동업 생각 중
공직·사업 다 좋으니 본인이 결단을

Q **알곡이 남자 73년 1월 15일양력 오후 2시**

저의 남편에 대하여 여쭙니다. 1973년 1월 15일 양력 오후 2시생인데 지금은 자세히 말씀 드리기가 거북해서 직장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정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승진 케이스였는데 세월호 사건과 내부조직의 문제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진할 수 있는 운이 안 된다면 친척 형님이 운영 하고 있는 건강식품 가공 공장을 동업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한다면 정년퇴직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는지 기로에 섰습니다. 직장생활도 신경 쓸 일이 적지 않고, 사업을 하자니 겁도 많이 나니 어찌해야 될까요.

A 공무원 사회만큼 승진 인사(人事)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 없지요. 그동안 수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여러 경우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되는 예를 가끔 봅니다. 그 오묘한 세상사, 알고도 모를 것이 관운이 작용을 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편분은 '초목'과 같은 형상으로 언뜻 약하게 보이지만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갈대와 같아 은근한 끈기와 상당한 고집이 있습니다. 관운이 장생지(새로 태어나 성장하는 것)로 앞으로 닥쳐올 운에서 승발하고 있으므로 현재 다니고 있는 권력 기관을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후반까지도 입신양명할 수 있으니 잠시동안의 침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므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사업운도 왕성한 기운을 타고 있으므로 친척과 동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학 용어로 시상 편재격(時上偏財格:태어난 시에 사업운을 갖고 있음)으로 재물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남편 자신이 신강(身强)하여 재물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으니 사업을 할 운도 있으며 사주 원국에서 직업군에 충형살을 맞고 있으며 운에서 재생관(財生官:재성이 관성을 생해줌)으로서 권력기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남편이 선택하도록 하세요. 극처재손(剋妻財損)하는 때에는 귀하가 부정한 뇌물을 받아서 남편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힘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간, 담, 위산과다를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1일 (음 윤 9월 2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보이지 않는 알력 생긴다. **60년생** 독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 **72년생** 제안한 일은 반응이 뜨겁다. **84년생** 쿨한 벗 덕에 유쾌한 하루~.

49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61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곱다. **73년생** 야외 활동 땐 안전사고 조심~. **85년생** 선행은 선행을 부르는 법이다.

50년생 걱정은 해프닝이 된다. **62년생** 날 대신할 것을 찾아보라. **74년생** 때론 밀려난 자리가 덕이 된다. **86년생** 입소문 너무 믿으면 낭패 볼 수도.

51년생 불리하다고 룰 바꾸지 말라. **63년생** 말 보태면 의혹만 커진다. **75년생** 아랫사람과 충돌할 상황 만들지 말라. **87년생** 움직이는 일은 앞당기는 게 좋다.

52년생 변화 새 바람 분다. **64년생** 감정 섞인 설전은 배해무익~. **76년생** 자영업자는 남몰래 웃을 일 생긴다. **88년생** 안팎 경사에 오늘만 같아라.

53년생 이유 없는 무덤은 없는 법~. **65년생** 부모라는 역할이 주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 **77년생** 유업업소 출입 삼가라. **89년생**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된다.

42년생 뚝심이 모처럼 빛을 본다. **54년생** 변수 많으니 희망의 끈 놓지 말라. **66년생** 나누며 즐길 일이 생긴다. **78년생** 배우자 덕에 행복 완전 충전~.

43년생 어느 장단에 춤출지 모르는 날~. **55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67년생** 측근의 변심에 우울하구나. **79년생** 생각 바꾸면 새 길이 보인다.

44년생 외출하면 공돈이 생긴다. **56년생** 투자일은 타이밍을 잘 맞춰라. **68년생** 개똥도 약에 쓸려니 없는 격이다. **80년생** 생각도 못한 실수에 허망하구나.

45년생 여론 따르면 편안~. **57년생** 불운 속에도 행운의 싹은 자란다. **69년생** 조직의 일엔 함께 고민하라. **81년생** 상사의 칭찬에 일마다 즐겁다.

46년생 따끔한 충고로 존재감 보여준다. **58년생** 부도낼 약속은 말라. **70년생** 방심하면 어처구니없는 실수한다. **82년생** 조직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라.

47년생 혈압환자는 약 꼭 챙겨라. **59년생** 벗과 한잔은 언제나 즐겁다. **71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83년생** 직장인은 선행에 칭찬이 쏟아진다.